맞춤형 기업 지원정책 성과

남원시, 경영 자금 지원·근로자 복지·행정 소통 등 기업 목소리 반영 정책 호응

최경식 남원시장

남원시가 2025년 상반기에 추진한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내며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경영 자금 지원부터 근로자 복지, 판로 개척, 행정 소통까지 기업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들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남원시는 기업 운영의 큰 고민 중 하나인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상반기 동안 14개 기업에 총 37억 8천만 원의 융자금과 이차보전금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 민생안정종합대책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자보전율을 기존 3%에서 4%로 한시적 상향 조정하고,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을 1년 연장토록 하여 기업의 금융 부담을 크게 덜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의 경영 안정성과 자금 흐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오는 7월부터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와 폐수처리비 지원을 신청받아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 복지 측면에서도 뚜렷한 성과로, 하루 평균 223명이 이용 중인 통근버스 4개 노선 운행으로 출퇴근 편의를 제공했으며, 19개 기업에 2억 원 규모의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뒷받침하고, 전입 정착금과 애향장려금도 각각 25개 기업, 17개 기업에 지급되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7월 준공할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는 기숙사와 북카페, 체력단련실, 식당 등 근로자의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복합시설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의 매출 확대와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으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10개 기업, 2천만 원), 온라인 플랫폼 프로모션(5천만 원), 수출사다리 사업(12개 기업, 6천5백만 원) 등 다각적인 판로 개척 노력이 이어지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기업과의 밀착형 소통도 남원시의 강점으로, '1일 1기업 방문', '1기업-1공무원 전담제', '기업후견인제'를 통해 130여 개 기업과 지속적으로 교감하며, 상반기 동안 접수된 200여 건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의 기민한 대응은 기업들의 신뢰를 높이고 있으며,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겠다는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의 미래 유망 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계획 변경 용역도 마무리되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분양과 투자 유치 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아울러 28억 원이 투입되는 노암1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며, 기업과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산업문화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변화는 준비된 곳에 먼저 온다는 자세로 상반기 정책의 성과를 발판 삼아 하반기에도 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지역경제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장마 취약지역 사전 점검

남원시 120민원봉사대에서는 다가오는 여름철 장마 취약지역에 대해 지난 27일부터 7월 11일까지 10일간 사전 집중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을 앞두고 시민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 마을안길, 학교, 관광지, 주택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우수맨홀, 빗물받이 등 가장 기초적인 배수시설에 대해 살피며 낙엽 및 쓰레기 제거, 배수로에 유실된 토사 제거 등 기본적인 정비활동을 하며, 전문적인 배수 정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다.

김현옥 시민소통담당관은 "시에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의료원, 찾아가는 행복 만리길 의료서비스 지원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은 지난 26일 임실군 청웅면 복지회관에서 주민 7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복 만리길' 의료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남원의료원은 지난 26일 임실군 청웅면 복지회관에서 주민 7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복 만리길' 의료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임실군 청웅면, 전북도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한 찾아가는 행복 만리길로, 복지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농촌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에게 의료, 상담, 문화, 여가 활동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행사에는 남원의료원 전문의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진이 진료와 영양 수액 등을 제공하고, 전북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종합돌봄 상담을 운영하였으며, 임실군 보건의료원 등의 기관이 참여했다.

남원의료원 오진규 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의 건강 지킴이 역할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감도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도모

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 추진

임실군이 귀농귀촌인들의 지역 정착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오수면 봉천리 172번지 일원에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을 조성 중이다.

군은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4년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총사업비 49억원으로 오수면 봉천초 폐교부지를 활용해 단독주택(19평) 10동과 실습농장(600㎡/동당) 및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며,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은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주택, 실습농장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입주자는 일정 기간(최대 3년) 농촌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개인별 실습농장(시설하우스)에서 영농체험과 기초영농교육을 경험하는 등 다양한 귀농·귀촌 적응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군은 2021년도부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을 조성하여 임실읍 정월리 12세대와 청웅면 구고리 10세대 총 22세대, 2,200㎡(100㎡/호당) 규모의 실습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귀농귀촌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주거지 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 외에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시민이 일정 기간(30~180일) 농촌에 머물면서 농촌 문화를 이해하고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연수비, 숙박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 귀농·귀촌 교육훈련비 지원, 소득사업과 생산 기반 시설 지원, 주택 구입·신축 및 수리 지원 등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을 조성하여 귀농귀촌인들이 임실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은 지난 26일 금과면 생활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함께 전북, 순창군 착한 한끼 나눔행사'를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함께 전북, 순창군 착한 한끼 나눔행사' 성료

순창군은 지난 26일 금과면 생활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함께 전북, 순창군 착한 한끼 나눔행사'를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사)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고 순창군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했으며, 군민 270여 명에게 삼계탕, 찰밥, 계절 반찬, 과일 등 푸짐한 식사가 제공됐다.

식사 전에는 네일아트, 수지침, 부채 만들기 등 전문 봉사 부스와 난타, 하모니카, 민요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펼쳐져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반려 문화 이해 행동 관리 교육 실시

임실군이 지난 23일과 26일 지역 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성숙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 문화 이해와 행동 관리 교육'을 오수 반려누리센터에서 개최했다.

교육은 임실군과 전북대학교 지역혁신센터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지역 주민 및 임실군 직원 등 총 60여 명이 참여했다.

반려동물산업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행동 관리 능력 향상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반려동물과 인간의 건강한 공존 실현, 그리고 지역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은 총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1차 교육에서는 펫티켓과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상호 이해를 주제로, 반려동물의 감정과 행동, 책임 있는 반려 문화, 비반려인의 시각에서의 공존 방법 등이 소개됐다.

2차 교육에는 반려동물의 행동학적 특성과 문제행동에 대한 분석 및 대처 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 진행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순창군이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건강 취약계층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군은 9월까지 폭염 대응 건강관리 대책을 추진하며, 독거노인 910명을 포함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33명의 방문건강관리 전담 간호사와 보건의료원 전문 인력이 직접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폭염 특보 시에는 안부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실시간 건강 상태를 점검하며 응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유지한다.

지역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에게 온열질환 주요 증상과 응급처치 방법을 알기 쉽게 교육하고, 주민들에게는 시원한 환경 유지, 수분 섭취, 한낮 외출 자제 등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홍보 중이다. /순창=이양원 기자